

## 물리치료 전공대학생들의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강준구 · 복원주 · 서유리 · 이도영 · 한동국 · 손경현 · 이경현<sup>1</sup>

<sup>1</sup>한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A study on Learning Motivation and Career Preference After Grad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Jun-Gu Kang · Won-Ju Bok · You-Ri Seo · Do-Young Lee

Dong-Guk Han · Kyung-Hyun Son · Kyung-Hyun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Hanlyo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career preference after gradu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Methods** : This survey implement with 400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from 3 college and university in korea, jeonnam 394 of 400 attended this survey. The measured date were analysed by using repeated anova, frequency analysis,  $\chi^2$ -test, t-test.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areer prefer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department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ll by workplace(general hospital, special hospital). Career preference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ol system(college, university)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work place. Learning motivation(inner motiv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male by gender. Learning motivation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ool system.

**Key words** : Career preference, Learning motivation, work place, Physical therap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청년기에 접어드는 20세 전후의 시기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역할들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심리 사회적 유예기간이다(Erikson, 1968).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등 기본적인 발달과업 성취가 요구된다(한금선, 2005). 그러므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업성취는 관심의 대상이다(최영옥, 2012).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학습동기가 뒷받침되어야만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김용래(1993)는 동기란 개인의 행동 수준이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행동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유발된 행동을 일정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게 하는 힘이라고 하였으며, 학습과 관련해서 동기는 학습자들의 제반 학습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동시에 학습 의욕을 환기시켜 주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동기를 학습동기라고 한다고 하였다.

Schunk(1990)도 학습상황에서 동기란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끈기를 보이는 힘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동기란 학습행동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률과 그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학습행동을 하게 하는 모든 심리적인 상태이며(최영옥, 2012),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준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학습동기는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이끌어 주며, 학습활동을 지속 시키고 학습의 방향을 결정지어준다(김용래 & 허남진, 2003).

또한 개인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이 일생

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이다.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생활양식,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킨다(주은주, 2006).

진로의 선택역시 개인이 결정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미래의 경쟁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는 강계 각 분야 서로 다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미래 생활을 위하여 계획적인 생계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충기, 1991).

특히, 학교교육을 마감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의 선택은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박부승, 2013). 2015년 현재 4년제 대학교48개, 3년제 대학 39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를 전공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약 87.5%의 국가고시 합격률로 평균 3,679명의 물리치료사를 배출했다(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 2015). 이승주(2009)는 ‘전문대학 선호학과 유형 분석’에서 물리치료학과가 다른 보건계열 학과와 비교하여 취업률과 입학률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졸업 후 면허취득 시 9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오영호, 2007). 비록 취업률은 높지만 박선민(2009)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형수(2005)는 직무 만족도에 따라 근속기간과 양질의 물리치료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홍명애(2002)는 상당수의 물리치료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근무 환경에 대한불만족과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업흥미’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적성에 맞는 분야와 근무 환경의 선택은 근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학)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또는 학과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물리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공자 자신의 진로 준비와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정보를 빠르게 선별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탐색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주운주, 2006). 따라서 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진로지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지도에 앞서 우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최은영, 2001). 김혜정(2005)은 인구학적요인 중에서 성별과 연령이 취업결정요인이 되고 인적자본요인에서는 자격증과 훈련경험, 출신대학, 학제가 취업결정에 유의한 요인이 되며, 가구적 요인에서는 가구의 소득, 부모의 학력이 취업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희숙(2009)은 성별에 따라 취업준비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성에 비해 질이 높은 취업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숙, 2009). 안수영(2008)은 학생들의 학교소재지 그리고 성별 따라 선호하는 취업 형태가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박부승 등, 2013; 김명철 등, 2013).

진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물리치료(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를 성별, 학년, 학제 등으로 분석 하여 향후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지역 내에 위치한 3·4년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총 400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사전 설명 후 현장에서 직접 배부, 작성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수행하는 동안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400명의 자료 중 불성실응답 자료 4건 중복응답 자료 2건을 제외한 39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률은 98.5%로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및 방법

#### 1) 진로선호도 검사척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개인적인 특성과 진로기대 방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김진석(2006), 이선영(2009), 위성식(2008), 이성은(2010), 박부승(2013) 등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기초로 설문초안을 작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학제로 구성하였다. 진로에 관한 문항은 관심 물리치료 학문 분야와 원하는 진로 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관심 물리치료 학문분야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종별학회 분과 기준을 토대로 신경계물리치료, 정형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전기광선 물리치료, 소아물리치료, 심호흡계 물리치료, 노인물리치료, 여성물리치료로 구성하였으며, 원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문항은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물리치료학 개론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한국 고용정보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물리치료사 취업가능 분야를 토대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병·의원, 복지관 및 공공기관, 스포츠 구단 및 센터, 기타로 구성하였다.

#### 2) 학습동기 검사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학습동기 검사지는 학습동기에 관한 문헌연구 및 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Amabile 외(1994)의 작업 선호검사지(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WPI)의 요인구조를 기본 틀로 하여 기존의 동기 검사 도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윤미선(2003)이 새롭게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WPI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들의 업무선호검사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윤미선(2003)에 의해 20개 문항으로 안면타당도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학업상황에 적합하게 문항의 내용이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사 형식은 자기-보고식이며, 2요인, 총 20개 검사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평소 성향을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동기 척도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뉘는데,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

표 1. 학습동기 검사 도구 구성

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alpha$ )
내재적 동기	2,4,7,8,10,12,14,15,17,19	.782
외재적 동기	1,3,5,6,9,11,13,16,18,20	.787
전 체		.810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tivation)란 어떤 과제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 호기심, 자기만족감과 성취감 등에서 비롯되는 동기이며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과제 그 자체와는 관계없이 과제의 해결이 가져다 줄 보상이나 벌에서 비롯되는 동기이다.

분석된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는 내재적 동기  $\alpha = .782$ , 외재적 동기  $\alpha = .787$ 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810$ 으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7.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학제·학년에 따른 진로선호도는  $\chi^2$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으며, 성별과 학제에 따른 학습동기는 T-검정(t-Test),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석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alpha = 0.05$ 로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394명으로 남자 45.4%, 여자 54.6% 이었고, 연령은 남자평균 23.1세, 여자평균 22.1세이었으며, 학제는 3년제 68.8%, 4년제 31.2% 으로 3년제 학생 수가 더 많았다. 학년은 2학년 31.0%, 3학년, 1학년, 4학년 순으로 2학년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일반고 73.1%, 실업고, 특성화고, 기타, 검정고시 순으

로 일반고졸업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는 통학 41.4%, 자취, 기숙사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4)

특성	구분	N(%)
성별	남	179(45.4)
	여	215(54.6)
연령(세)	남	179(23.1)
	여	215(22.1)
학제	3년제	271(68.8)
	4년제	123(31.2)
학년	1학년	115(29.2)
	2학년	122(31.0)
	3학년	116(29.4)
	4학년	41(10.4)
학력	일반고	288(73.1)
	특성화고	42(10.7)
	실업고	52(13.2)
	검정고시	5(1.3)
	기타	7(1.8)
거주지	기숙사	86(21.8)
	자취	145(36.8)
	통학	163(41.4)

### 2. 성별에 따른 진로선호도

#### 1)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

성별에 따른 진로선호도 관심분야에서 남자는 정형계(44.7%), 스포츠계(33.5%)를 순으로 선호했고, 여자는 정형계(29.3%), 소아(17.7%), 신경계(14.9%), 스포

표 3.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 (N=394)

	남자(%)	여자(%)	$\chi^2$
정형계	80(44.7)	63(29.3)	56.164*
신경계	14(7.8)	32(14.9)	
심호흡계	5(2.8)	5(2.3)	
스포츠	60(33.5)	32(14.9)	
소아	9(5.0)	38(17.7)	
노인	5(2.8)	8(3.7)	
전기광선	3(1.7)	26(12.1)	
여성	3(1.7)	11(5.1)	

\*  $p < 0.05$

츠계(14.9%) 순으로 선호해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p<0.05).

2) 성별에 따른 직장형태

성별에 따른 진로선호도 직장형태에서 남자는 종합병원·종합전문(40.818%), 스포츠구단 및 센터(24.6%) 순으로, 여자는 종합병원·종합전문(59.5%), 기타(학업의 연장)(11.6%), 병원의원·한방(11.2%) 순으로 선호해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4).

표 4. 성별에 따른 직장형태 (N=394)

	남자(%)	여자(%)	$\chi^2$
종합 <sup>i</sup>	73(40.8)	128(59.5)	22.774*
의원 <sup>ii</sup>	18(10.1)	24(11.2)	
복지관 <sup>iii</sup>	20(11.2)	19(8.8)	
스포츠 <sup>iv</sup>	44(24.6)	19(8.8)	
기타 <sup>v</sup>	24(13.4)	25(11.6)	

\*p<0.05

<sup>i</sup> 종합 : 종합병원·종합전문

<sup>ii</sup> 의원 : 병원의원·한방

<sup>iii</sup> 복지관 : 복지관 및 공공기관

<sup>iv</sup> 스포츠 : 스포츠 구단 및 센터

<sup>v</sup> 기타 : 기타(학업의 연장)

표 5. 학년에 따른 관심분야 (N=394)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chi^2$
정형계	41 (35.7)	44 (36.1)	46 (39.7)	12 (29.3)	28.201
신경계	11 (9.6)	9 (7.4)	20 (17.2)	6 (14.6)	
심호흡	2 (1.7)	5 (4.1)	2 (1.7)	1 (2.4)	
스포츠	31 (27.0)	30 (24.6)	21 (18.1)	10 (24.4)	
소아	7 (6.1)	19 (15.6)	17 (14.7)	4 (9.8)	
노인	4 (3.5)	4 (3.3)	3 (2.6)	2 (4.9)	
전기	12 (10.4)	6 (4.9)	5 (4.3)	6 (14.6)	
여성	7 (6.1)	5 (4.1)	2 (1.7)	0 (0.0)	

N(%)

3. 학년에 따른 진로선호도

1) 학년에 따른 관심분야

학년에 따른 진로선호도 관심분야에서 정형계 3학년(39.7%), 신경계 3학년(17.2%), 심호흡계 2학년(4.1%), 스포츠계 1학년(27.0%), 소아 2학년(15.6%), 노인 4학년(4.9%), 전기 4학년(14.6%), 여성 1학년(6.1%)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5).

2) 학년에 따른 직장형태

학년에 따른 진로선호도 직장형태에서 종합병원·종합전문이 1학년(61.7%), 병원의원·한방 3학년(12.9%), 복지관 및 공공기관 3학년(15.7%), 스포츠 구단 및 센터 4학년(22.0%), 기타(학업의 연장) 2학년(18.0%)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6).

표 6. 학년에 따른 직장형태 (N=394)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chi^2$
종합 <sup>i</sup>	71 (61.7)	58 (47.5)	55 (47.4)	17 (41.5)	17.361
의원 <sup>ii</sup>	12 (10.4)	11 (9.0)	15 (12.9)	4 (9.8)	
복지관 <sup>iii</sup>	7 (6.1)	10 (8.2)	17 (15.7)	5 (12.2)	
스포츠 <sup>iv</sup>	17 (14.8)	21 (17.2)	16 (13.8)	9 (22.0)	
기타 <sup>v</sup>	8 (7.0)	22 (18.0)	13 (11.2)	6 (14.6)	

N(%)

<sup>i</sup> 종합 : 종합병원·종합전문

<sup>ii</sup> 의원 : 병원의원·한방

<sup>iii</sup> 복지관 : 복지관 및 공공기관

<sup>iv</sup> 스포츠 : 스포츠 구단 및 센터

<sup>v</sup> 기타 : 기타(학업의 연장)

4.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도

1) 학제에 따른 관심분야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도 관심분야에서 정형계 가 3년제(35.4%), 4년제(38.2%)로 가장 높았고, 심호흡계

가 3년제(1.8%), 4년제(4.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학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7).

표 7. 학제 따른 관심분야 (N=394)

	3년제(%)	4년제(%)	$\chi^2$
정형계	96(35.4)	47(38.2)	11.884
신경계	35(12.9)	11(8.9)	
심호흡계	5(1.8)	5(4.1)	
스포츠	63(23.2)	29(23.6)	
소아	30(11.1)	17(13.8)	
노인	6(2.2)	7(5.7)	
전기광선	23(8.5)	6(4.9)	
여성	13(4.8)	1(0.8)	

N(%)

2) 학제에 따른 직장형태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도 직장형태에서 3년제(55.7%), 4년제(40.7%)로 종합병원·종합전문이 가장 높았고, 3년제(7.4%) 4년제(15.4%) 복지관 및 공공기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학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표 8).

표 8. 학제에 따른 직장형태 (N=394)

	3년제	4년제	$\chi^2$
종합 <sup>i</sup>	151(55.7)	50(40.7)	14.06*
의원 <sup>ii</sup>	32(11.8)	10(8.1)	
복지관 <sup>iii</sup>	20(7.4)	1(15.4)	
스포츠 <sup>iv</sup>	37(13.7)	26(21.1)	
기타 <sup>v</sup>	31(11.4)	18(14.6)	

N(%), \*  $p < 0.05$

<sup>i</sup> 종합 : 종합병원·종합전문

<sup>ii</sup> 의원 : 병원의원·한방

<sup>iii</sup> 복지관 : 복지관 및 공공기관

<sup>iv</sup> 스포츠 : 스포츠 구단 및 센터

<sup>v</sup> 기타 : 기타(학업의 연장)

5. 학습동기

1)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내재적 동기에서 남자(26.64 ± 4.31), 여자(24.85 ± 3.25), 외재적 동기에서 남자(24.47

± 3.43), 여자(24.51 ± 2.73), 내재적 동기는 성별과 관계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5$ ), 외재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9).

표 9. 성별에 따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N=394)

		N	M ± SD	t
내재적동기	남자	179	26.64 ± 4.31	4.579*
	여자	215	24.85 ± 3.25	
외재적동기	남자	179	24.47 ± 3.43	-0.134
	여자	215	24.51 ± 2.73	

\*  $p < 0.05$

2)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 내재적 동기에서 2학년(26.05 ± 3.59), 4학년(25.85 ± 3.69), 3학년(25.57 ± 4.13), 1학년(25.27 ± 3.95) 순으로, 외재적 동기에서는 1학년(24.70 ± 3.13), 2학년(24.54 ± 3.12), 3학년(24.34 ± 3.14), 4학년(24.17 ± 2.45) 순으로 나타났으나, 내·외재적 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10).

표 10. 학년에 따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N=394)

		N	M ± SD	F
내재적동기	1학년	115	25.27 ± 3.95	0.857
	2학년	122	26.05 ± 3.59	
	3학년	116	25.57 ± 4.13	
	4학년	41	25.85 ± 3.69	
	합계	394	25.66 ± 3.87	
외재적동기	1학년	115	24.70 ± 3.13	0.433
	2학년	122	24.54 ± 3.12	
	3학년	116	24.34 ± 3.14	
	4학년	41	24.17 ± 2.45	
	합계	394	24.49 ± 3.06	

3) 학제에 따른 학습동기

학제에 따른 학습동기 내재적 동기에서 3년제(25.54 ± 3.66), 4년제(25.91 ± 4.30), 외재적 동기에서 3년제(24.66 ± 3.11), 4년제(24.11 ± 2.93)로 나타났으나, 내·외재적 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11).

표 11. 학제에 따른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N=394)

		N	M ± SD	t
내재적동기	3년제	271	25.54 ± 3.66	-0.895
	4년제	123	25.91 ± 4.30	
외재적동기	3년제	271	24.66 ± 3.11	1.657
	4년제	123	24.11 ± 2.93	

#### IV. 고 찰

본 연구는 3년제 4년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별, 학년, 학제 등에 따른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를 조사하여 향후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진로선호도 관심분야에서 남자는 정형계 44.7%, 스포츠계 33.5% 순으로, 여자는 정형계 29.3%, 소아 17.7% 순으로 선호하였고, 박부승(2012)의 연구에서도 남자는 정형물리치료가 47.5%, 스포츠물리치료 21.4% 순으로, 여자는 정형물리치료 44.0%, 신경계물리치료 22.8% 순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이 남녀 모두 정형물리치료를 높게 선호하였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진로선호도 직장형태에서 남자는 종합병원·종합전문 40.8%, 스포츠클럽 및 센터 24.6% 순으로, 여자는 종합병원·종합전문 59.5%, 기타(학업의 연장) 11.6%, 병원의원·한방 11.2%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박부승(2012) 연구의 선호 근무직장 형태에서 남자는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29.8%, 병·의원(한방 병·의원) 23.1% 순으로, 여자는 병·의원(한방 병·의원) 40.0%,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29.8% 순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도 관심분야에서 정형계가 3년제 35.4%, 4년제 38.2% 로 가장 높았고, 심호흡계가 3년제 1.8%, 4년제 4.1%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박부승(2012)의 연구에서는 정형물리치료 4년제 40.7%, 3년제 47.1%로 가장 높았고, 4년제에서 전기광선물리치료 8.2%, 3년제에서 기타 5.7%로 보고하였다. 이는 학제에 따른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3년제 대학의 학생들보다 많은 학점이수를 함에 있어서 다

양한 분야를 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된다는 박지현(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도 직장 형태에서 3년제 55.7%, 4년제 40.7% 로 종합병원·종합전문이 가장 높았고, 3년제 7.4%, 4년제 15.4% 로 복지관 및 공공기관이 가장 낮게 나타나 박부승(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물리치료 전공자들 역시 학제와는 무관하게 좋은 근무 여건과 높은 급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는 내재적 동기에서 남자 26.64 ± 4.31, 여자 24.85 ± 3.25, 외재적 동기에서 남자 24.47 ± 3.43, 여자 24.51 ± 2.73으로 내재적 동기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재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내재적 동기는 어떤 과제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 호기심, 자기만족감과 성취감 등에서 비롯되는 동기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26.64로 더 높았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강한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영옥(201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모두 더 높게 보고하였고, 그 중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외재적 동기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가 성별에 따라 더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한 학습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는 최영옥(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학년에 따른 학습동기 내재적 동기에서 2학년 26.05 ± 3.59, 4학년 25.85 ± 3.69, 3학년 25.57 ± 4.13, 1학년 25.27 ± 3.95 순으로, 외재적 동기에서는 1학년 24.70 ± 3.13, 2학년 24.54 ± 3.12, 3학년 24.34 ± 3.14, 4학년 24.17 ± 2.45 순으로 나타났으나, 내·외재적 동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습동기는 학년에 무관하게 향상되지 않는다는 한민수(2012)의 연구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물리치료(학)과의 교수-학습 과정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진로선택에 따른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이 정형물리치료가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것과 근무하고 싶은 직장 형태로 종합병원·종합전문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이들이 물리치료사로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한정적이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은 박부승(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학습동기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있다. 학생들의 개인별 동기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고 충분한 경험을 제공한 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능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최영옥, 2012).

이상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를 분석을 통하여 향후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후속 연구를 통하여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를 성별·학년·학제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지역에 물리치료(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총 400부 중 중복응답 자료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94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진로선호 관심 분야는 남녀 모두 정형계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장형태도 남녀 모두 종합병원·종합전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 관심 분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장형태는 3년제·4년제 모두 ‘종합병원·종합전문’에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는 내재적 동기에서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보였다.
4. 학제에 따른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진로선호도와 학습동기를 분석을 통하여 향후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선정대상자에 있어서 전남 지역의 물리치료(학)과 학생으로 국한되어있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후속 연구를 통하여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용래.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3.
- 김진석. 대학 태권도 전공자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 선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2006.
- 김충기. 진로교육 발전의 회고와 전망. 한국진로교육학회. 2003;1-17.
- 김혜정. 청년층의 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2005.
- 박부승.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성별과 학제에 따른 진로선호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2012.
- 박선민.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신체 및 정신 증상[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09.
- 박지현. 국내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분석[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2009.

- 방요순, 김희영.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4;8(1):73-80.
- 신지윤. 남녀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 '가능한 직업적 자기'의 동기적 특징[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0.
- 안수영. 지방대 여학생의 취업장벽과 취업준비[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08.
- 위성식. 사회체육 전공자의 희망진로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08;34(1):13-24.
- 이선영.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9.
- 이성은. 대학생의 성향적 조절초점이 진로장벽과 진로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10.
- 이형수, 송화경, 김한나, 문신애, 박화정, 허은영 외 3명. 전남 동부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5;17 (1):71-86.
- 오영호. 2006년도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33:88-102.
- 이승주. 전문대학 선호학과 유형 분석[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9.
- 조희숙.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활동과 취업성과의 관계 분석[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 주은주, 이현옥. W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6;6(2): 119-125.
- 지태정. 의료보건계 대학생들의 취업인식 실태에 따른 취업전략. 가야대학교 논문집; 2007.
- 최영옥. 학습동기가 시험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2.
- 최은영.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 요인 분석[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1.
- 하민수.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과학 학습 동기 구조의 차이 분석. 중등교육 연구. 2012;60(2):365-384.
- 한금선.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 행위와 스트레스증상과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005; 35(3):585-592.
- 한민수.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과학 학습 동기 구조의 차이분석.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2;60(2):365-384.
- 홍명애. 물리치료사의 인구학적 변인 및 직업흥미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2.
- Bandura, A. & Schunk, D. 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self-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1;41(3):586-598.
-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york. Norton. 1968.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http://www.kpta.co.kr/>
-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5년 10월 10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5년 10월 17일  
 논문게재승인일(Date Accepted) : 2015년 10월 21일